

동강대 '장기·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



동강대학교(총장 김동욱)는 최근 교내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생명운동본부 주최로 진행된 '장기 및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에 참여했다. <동강대 제공>

화순전남대병원-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



화순전남대병원(원장 김형준)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는 최근 의료봉사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소의 지역민을 위한 서비스 강화를 다짐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동신대 건전 MT문화조성 쓰레기수거 봉사



동신대 관광경영학과(학과장 송경웅)는 최근 건전한 MT 문화 조성을 위해 MT기간 남원과 나주 일대에서 '춘향테마파크 일대 쓰레기수거 활동'과 '나주시티투어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동신대 제공>

남부대-광주시체육회 수영선수 육성 협약



남부대(총장 조성수)는 최근 총장실에서 광주시체육회(상임부회장 유재신)와 남부대 국제수영장 활성세 및 수영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남부대 제공>

“치어리딩 재능기부 공연 통해 사회공헌 앞장”

광주시 치어리딩연합회 박선경 회장

“아직 생소한 분야인 치어리딩(Cheer leading)을 알리고 싶어요. 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치어리딩을 가르쳐 주는 재능기부 활동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광주시 치어리딩연합회 박선경(38) 회장은 “광주에서 반드시 전국 규모의 치어리딩 대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치어리딩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다. 관객호응을 이끌어내고 선수를 응원하는 스포츠 서포터즈 역할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스포츠로 조명받고 있다.

박 회장은 “치어리딩은 여성과 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스포츠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150여년 전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시작된 치어리딩 문화는 현재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15개국에서도 활성화돼 있다. 대학에 전공학과가 개설돼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3년째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대회가 열리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17개 시·도 53개팀 892명이 참가했는데, 지난해 12개 시·도 34개팀 421명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박 회장은 “수도권에서는 치어리딩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지만 광주는 ‘아직’”이라고 말했다.

2002년 동신대 생활체육학과를 졸업한 그는

프로농구·프로배구 무대에서 맹활약  
고향 광주서 전국대회 개최 하고파  
올림픽·U대회 정식종목 채택 최선

농구경기 중계를 보다 치어리더에 매력을 느꼈다. 7년 동안 삼성 천더스와 삼성화재 등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무대에서 치어리더로 활약했다.

“제가 응원해 팀이 이기면 팬들도 기뻐하겠고 그 맛에 치어리더에 푹 빠졌습니다. 일을 그만둔 뒤 관객 입장에서 치어리딩 대회를 가봤는데, 어린 친구들에서 힘차고 밝은 기운을 받았어요. 고향 사람들에게도 그 ‘맛’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치어리딩 불모지 광주에서 그는 적극적으로 협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학교에서는 치어리딩을 보급하고 있다. 2014년 교육부가 주관한 ‘전국학교 치어리딩 스포츠클럽대회’에 광주 시 대표팀을 출전시켰고, 세계선수권 치어리딩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두 명의 국가대표를 광주에서 배출하기도 했다.

또 전국대회인 광주U대회 응원에 참가할 치어리딩 선수를 모집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



력도 아끼지 않았다. 조순대와 동신대 체육관련 학과 교수들을 찾아가 선수를 모집했다. 그렇게 20여명의 선수가 모였지만, 응원제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3주 남짓. 승용차를 운전해 수업이 끝난 학생들을 직접 태우러 갔고 새벽 2시까지 연습한 뒤에는

나주와 광주를 오가며 각자 집까지 데려다 줬다. 갖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 둘이 있는 주부에게 걸고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고생한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선수들은 각자 전공을 찾아 대회 직후 헤어져 팀이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비인기종목인 탓에 지도자 과정을 밟아도 추후 활동에 제약을 받아서다.

하지만, 효과는 있었다. 지난해 광주에서 처음 치어리딩 대회를 열게 된 것이다. 규모는 작지만 ‘제1회 광주시교육감배 창작댄스&치어리딩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우수한 수완중 학생들이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치어리딩 대회’에 출전해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제1회 광주시생활체육 치어리딩대회’를 여는 등 지역에서 이름을 알려가고 있다.

그는 “올해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광주 학교클럽팀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가대표 선수들로 코치진을 꾸리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어리딩이 올림픽과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에서 정식종목 채택됐으면 합니다. 우선 지역에서 치어리딩을 알려가는 게 급선무죠. 5월부터는 경기장 밖에서 아이들이 치어리딩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용기자 pboxer@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협회장 이강열)는 최근 광주교육대학교 강당에서 외국인 교사·통역자·학교관계자 등 156명의 강사요원을 대상으로 문화교실(CCAP) 사전교육을 받았다.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CCAP)은 지구촌 가족들이 교류를 통해 세계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평화로운 사회 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광주·전남지역 46개 학교에서 진행된다.

2003년부터 실시된 문화교실(CCAP)은 그동안 광주·전남 760개 학교에서 가봉, 레바논, 터키, 호주, 캐나다, 몽골, 스페인, 네팔, 모



로코, 인도 등 46개국의 문화를 소개해 왔다. 이강열 협회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외국문화를 접하고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지구촌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하여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의 사회에서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자”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용범 전남대병원 교수 한일 이비인후과학회 차기 회장

전남대병원 이비인후과 조용범 교수가 최근 한일 이비인후과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조용범 교수는 일본 하얏트 리젠시 도쿄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이비인후과 학술대회’에서 한일 이비인후과학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일 이비인후과학회는 1986년 시작돼 2년마다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가며 개최되며, 국내외 이비인후과 전문의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학술대회이다.

17차 한일 이비인후과 학술 대회는 오는 2018년 4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조용범 교수는 전남대의과대학교 전북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5년부터 강단에서 후학양성에 힘써 왔으며, 일본 동경대 이비인후과 객

원교수·미국 하버드대 부속병원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제6대 화순전남대 병원장을 역임한 조용범 교수는 재임 기간 중 ‘1일 내 검사, 1주일내 수술’이라는 신속한 진료 시스템 구축과 의료질 개선 등을 통해 화순전남대병원을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수준의 암전문 병원으로 위상을 굳히는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했다.

조용범 교수는 “한일 이비인후과학회 회장의 책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광주와 전남대병원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한국·일본 양국 이비인후과 학술 발전, 상호교류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함평경찰, 탈북여성 간호사 꿈 펼 수 있게 공북방 마련

함평경찰서(서장 이기욱)는 중졸 학력 때문에 어릴 적부터 꿈꾸어 왔던 간호사 직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탈북여성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올해로 입국 8년째인 탈북여성 박씨(30·여)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도 중학교 졸업 학력 때문에 자격취득이 어려워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함평경찰서 조재현 정보보안과장은 이런 소식을 듣고 고민 끝에 묘안을 짜냈다. 미취학 청소년 멘토 강사로 활동 중인 112터대대원 의무경찰 5명과 함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움으로 고졸 검정고시반을 운영, 박씨의 좌절된



간호사 꿈을 다시금 찾아주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함평=황윤학기자 hwang@kwangju.co.kr

이세돌 9단 홍진기 창조인상 사회발전 부문 수상

‘인간대표’로서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결했던 이세돌(33) 9단이 제7회 홍진기 창조인상 사회발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4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이세돌 9단은 다음달 9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상금 5000만원과 함께 이 상을 받는다.

그는 지난달 9~15일 서울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저 매치’에서 알파고와 겨루면서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과 각성을 불러일으켰고, 3연패 후 감동적인 1승을 거두며 ‘이세돌 신드롬’을 일으켰다.

홍진기 창조인상은 유민(維民) 홍진기(1917~1986) 전 중앙일보 회장의 유지를 기리



고자 만든 상으로, 과학기술·사회발전·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의적인 업적을 올린 40대 연령 안팎의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우경식·김명숙씨 아들 희남군 김정수(화순 농협연합RPC)·이옥희씨 딸 속연양=17일(일) 오후 1시 서울 Y타워컨선 5층 그랜드홀, 피로연=8일(금) 오전 11시 화순군 동북면 북주교을.
▲송영호씨 차남 진영군 김재범(함평 범무사)씨 장녀 경인양=9일(토) 낮 12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W스퀘어 8층 체플홀 010-2036-7494.
▲정정환·김순자씨 아들 왕구군 김영섭(전 광주은행 본부장)·오경란씨 딸 율희양=9일(토) 낮 12시40분 광주시 광산구 아름다운컨선 1층 사넬홀.
▲박현규(새한철강 사장)·김공순씨 장남 종철군 김용성·이원기씨 장녀 현진양=23일(토) 낮 12시 서울 노보텔엠베스터 강남 2층 삼매인홀, 피로연=9일(토) 오후 6시 광주 상무리컨벤션.
▲조영목(공인중개사)·설용희씨 장남 인식군 송병양·이갑숙씨 장녀 민아양=10일(일) 오후 1시 경남 창원시 웨딩의전당.

- ▲강성용·박춘자씨 장남 유락군 정병수(농협사료 나주공장)·이애순씨 장녀 다은양=17일(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마리아주스퀘어.
**중친회**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광산구분원 정기총회=5일(화) 오후 5시 광산문화원 3층(구 광산구민회관) 문의 분원장 이현선 010-3637-9900.
▲동래정씨 광주·전남중친회(회장 정진원) 시조산 한식향사참배=5일(화) 오전 10시 부산시 진구 양정동 469 화지산 선영, 출발지 광주시 서구 능성동 상록회관 앞 오전 6시, 문의 상무이사 정영선 010-3609-2523.
▲경주김씨 광주·전남중친회 재광 이사회=6일(수) 오후 6시30분 광주시 동구 중앙로 예술의거리 건너편 화광공 문의 김재찬 010-6455-6296.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장흥분원 정기총회=6일(수) 오전 11시 장흥군 관산을 옥당리 고을 새마을금

- 고 2층, 문의 분원장 이기철 010-3626-3110.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화순분원 정기총회=6일(수) 오전 11시 화순농협 하나마트 2층 회의실 문의 분원장 이호근 010-3629-0980.
▲경주배씨 무안중친회(회장 배석준) 유림행사=6일(수) 오전 11시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태봉사 문의 010-5603-5077.
▲의령남씨 시중공 중회 정기총회 및 춘제=7일(목) 오전 11시 중회 회의실, 문의 총무이사 남윤영 010-8887-5254.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서구분원(분원장 이정문) 정기총회=8일(금) 오전 10시30분 광주시 서구 금동동 서창농협 3층 대회의실, 문의 분원장 이정문 010-8831-8507.
**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최광열) 월례회=5일(화) 오후 6시30분 광주시 동구 금강신식당 062-224-0808.

알림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광주시 동구자원봉사센터 살맛나는 경로당 문화활동 강사=건강증진·여가프로그램(요가·건강체조·웃음치료 등) 진행

가능한 개인이나 단체로 동구지역 10개 경로당에서 활동, 문의 062-228-1365.
**부음**
▲김급자씨 별세 주기탁(주내과 원장)·영탁(고은미래 원장)·동탁(광주지방병원 계장)씨 모친상=발인 6일(수) 광주 서구 장례식장.
▲홍정현(광주어망대표)씨 별세 석민·재민·준석씨 부친상=발인 6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이봉임씨 별세 은철영·철홍·경춘·옥경씨 모친상=발인 6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삼가 故人の冥福을 빕니다
201호 故학남 남(여/51세)
401호 故학말레 남(여/84세)
101호 故김병주 남(남/55세)
102호 故정영란 남(여/71세)
孝 金호 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